

일주분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성초 진각복지재단 이사장은 19일 진영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무설정사 법회경 강좌
해경 서울 무설정사 조실스님은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무설정사에서 <법회경> 강좌를 연다.

제주불교문화대 1기 수료식
중앙제주불교문화대학 학장 편승사 주지는 21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교육관에서 문화대학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광덕스님시봉일기' 출판회
송암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시봉일기 1·2권> 출판기념회를 연다.

삼화불교대학 졸업식
해인삼화불교대학장은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3월 12일부터 제13회 자원봉사 무료 시민대학 불학기를 개설한다. 02723-6258

국립충주대총장에
성기태 충주대 교수는 13일 충주대학교 총장에 선출됐다. 성교수는 대불연 회장, 국민고층취리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

백일기도 회향법회
리선행 황성 대승사 주지법사는 3월 4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33345-7666

불교포럼서 3월 강연
주강연 우리민족문화연구소장은 3월 2일 불교포럼 3월 강연에서 '한국의 힘, 불교문화에 있다'는 주제로 특강한다.

삼광서서 사진전
김철일 부산불교TV사자가 회장은 25일까지 금강불교대학에서 '천태법화의 향기를 찾아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전자지도에 다양한 불교문화 띄운다”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⑦ · 권

이카이 코리아 팀장
이혜은 교수

“가상공간에 펼쳐질 전자지도에 한국문화 담은 콘텐츠(내용)을 올리기 위해 이카이 코리아(ECAI Korea)에 유능한 학자를 영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카이 코리아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혜은(동국대 문화지리학) 교수는 올해 팀의 조직을 이카이 본부 구조에 맞춰 개편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주제를 잡아 전자지도에 올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카이’란 9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전자문화지도와 관련된 국제기구다.
이카이 코리아는 1999년 4월 조직돼, 그해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에서 13번째 팀으로 공식 등록됐다. 그 동안 전자문화지도 제작에 있어, 인터넷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사람·고승·문화재·구전문화·종교문화 등을 주제로 샘플(시험) 데이터를 만들며, 전자문화지도의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
이 교수는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이카이 대회에는 5개 팀이 늘어난 18개 팀이 참석했다. 이것은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내에서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동국대를 방문한 랭카스터버를

리대 교수를 만나 처음으로 ‘이카이’라는 말을 들은 이 교수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전자문화지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그 실효성을 입증해 강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불교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문화사 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년 간 미국·대만·멕시코·홍콩 등을 왕래하며 인터넷에 펼쳐진 전자문화지도를 클릭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에 열중해 왔다.
전자문화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분야를 담당할 지도도자, 위치정보(GPS)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인문·사회·철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도 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한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전자문화지도 사업과 관련된 행정당국과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 “전자문화지도는 가상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신개념의 문화 인프라”라며 “앞으로 불교학 철학 지리학 역사학 등 영역의 불교 관련 성과물을 응집시킬 수 있는 사이버 대학불사”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boo@buddhania.com)

“짜임새 있는 불교 인권운동 전개”

민족문제연구소장 한상범 교수

“불교 인권운동도 이제 조직력을 갖추고 짜임새 있게 전개돼야 합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장에 선임돼 3월 1일 취임식을 갖는 한상범 동국대법학·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교수는 “불교 인권운동이 그간 개인적인 인맥을 중심으로 행사나 이벤트 중심으로 전개돼다 보니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면서 “불교 인권단체들도 늦었지만 21세기를 선도하는 사회운동단체로서 지도자와 운동가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의 중책을 맡은 한 소장은 “21세기 통일민족사회의 새로운 출발은 잘못된 20세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 통해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사를 정립하고 민족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1964년 한일협정 반대교수단 참여를 시작으로 3선 개헌 유신 반대 등 독재정권 하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으며, 80년 당시 시위 선동과 계엄령일무렵 총 거부로 이유로 계엄사 합수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다. 아태공법학회 회장, 참여연대 고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민족정기회복운동 시민단체연대 상임의장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02969-0226 김재경 기자(jgk@buddhania.com)

진철 스님 장학금 3천만원

대전 충남학사 원장인 진철 스님(전 마곡사 주지)이 후진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월급으로 받은 3천만 원을 충청남도에 기탁,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철 스님은 지난달 말 충남학사 원장으로 있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영재장학금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은 체육성금으로 쾌척했다. 진철 스님은 거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



면서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충남학사는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액 도비를 들여 지난 99년 말 완공됐으며 현재 220여명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고대 禪語에 깃든 불교사상 변천연구”

한·중 불교학 교류 이종철 교수



“산스크리트어 불교용어가 한역되는 과정을 중국 현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 중 불교학계 사상 첫 교환교수 자격으로 3월 초순부터 1년간 북경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게 될 이종철(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1-6세기의 한역 과정을 추적해 선어(禪語)에 스며있는 당시 중국의 사상적 배경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선어(禪語)의 불교 용어 연구는 선어(禪語)의 본래 의미를 밝혀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空)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니아(sunya)인데, 1-2세기에는 ‘공’이 아닌 무(無)로 번역됐다. 이후 200여 년이 지나서야 ‘공’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슈니아가 ‘무’로, 다시 ‘공’으로 번역되었던 것은, 슈니아를 좋아하는 사상적 배경이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1년 간 관련 자료를 모아 국내에서도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를 비교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위덕대 2000학년도 학위 수여식

위덕대학교는 20일 '2000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2회째를 맞는 올해는 학사 137명과 회고 경영자 과정 16명이 배출됐다. 불교학과 수석의 영예는 평점평균 4.26을 받은 장미룡(25) 군이 차지했다. 손제석 총장은 “진리의 빛으로서 이 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 예비 군승교육

조계종포교원은 19-21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승입대전 교육을 실시했다.
14명의 예비군승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불교상담을 주제로 상담의 실제, 군내 선도활동에 필요한 상담기법, 임관 1년차 선배 군승과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운여 선생 선목유작 기증법회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은 17일 운여 김광업 선생의 선목유작 기증법회를 열었다.
기증 받은 목서 198점은 운여 선생이 도미 후 석정 스님에게 보냈던 것으로 선생 별세 후 유족들에게 되돌아갔다가 다시 전후(전 미술관 대표)씨가 입수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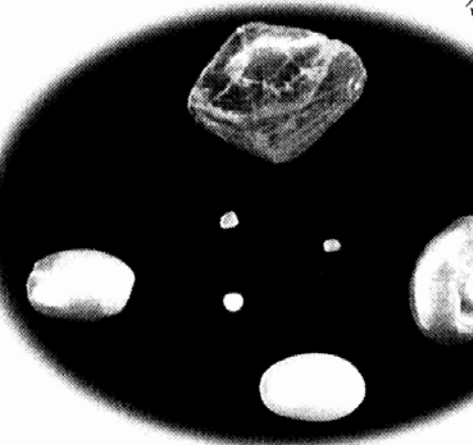
대한불교 교사대학 입학식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 전문 교육기관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예)이 21일 부산불교회관 8층 법당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 정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총재, 성오 범어사 주지,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에서는 55명의 신입생이 어린이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배움에 동참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큰스님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부처님나라 신라시대의 세분 성인인신 원효대사, 의상대사, 율필거사께서 수행 정진하신 덕화가 곳곳에 어려있는 삼성산 상봉에 자리한 상불암에서는 불자님 가정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랜 세월 풍진에 닳아지고 깨어진 당우를 보수하고 탕화를 새로 조성하는 기도를 봉행하던 중 부처님께서 내리시는 한줄기 빛을 두 손에 받아 안는 현몽을 하고 불탑의 나라 미안마 종교성에서 보내온 부처님 진신사리 다섯과를 모셔오는 기원을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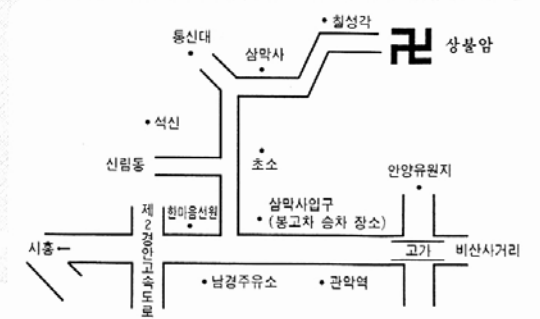
이에 바른 불교, 정법불교를 지향하는 저희 상불암에서는 불자님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고 우리 나라가 불국정토가 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중, 칠성, 산신, 독성 탕화점안과 동시에 운경큰스님, 법현스님, 도선스님의 법문도 듣는 49일 기도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미안마 고승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투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내용

- ◎ 산신, 칠성, 신중, 독성 탕화 점안 법회 : 3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3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사리친견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 : 3월 14일부터 5월 1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매일 오전 10시
- ◎ 3화상 초청 법회 : 3월 14일 (운경큰스님), 3월 25일 (법현스님), 4월 11일 (도선스님)
- ◎ 동참 문의 : 031-473-5042 (종무소)



불기 2545년 2월 일

108배 소원성취 기도도량 삼성산 상불암 주지 무위